

• 풍향계 •

대덕-중관촌, 공동협력모델 구축 협약

한국과 중국의 최고 하이테크기술 집적지역인 대덕밸리와 중관촌이 손을 맞잡았다.

대덕밸리벤처연합회(회장 이경수)는 지난 11일 베이징 상그리다호텔에서 중관촌과기원해정원수원구관리복무중심(주 임 張稷發)·북경시신기술산업개발시험구고신기술기술협회(회장 付首清)와 한·중 IT교류 및 합작의향서를 체결했다.

제5회 중관촌전시회 'IT Festival' 폐막식장에서 체결된 이번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공동전시회와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기술·인적 교류와 정보 및 간행물 교환 등의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특히 기관은 실질적인 교류를 위해 대덕밸리와 중관촌에 입주한 기업의 데이터베이스를 한·중 양국의 언어로 번역한 '인터넷 사이트'를 구축·운영하는 한편 중관촌에 대덕밸리 기술·상품전시관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이경수 회장은 "한·중 수교 10주년을 맞아 양국의 대표적인 벤처밸리가 손을 잡는 것은 상징적인 면에서도 의미가 크다"며 "이 협약을 통해 한·중 기업간 교류가 활성화되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도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베이징시신기술산업개발시험구고신기술기술협회는 중국의 정보기술 관련 업체가 몰려 있는 중관촌 하이테크단지 내 7천5백여개 기업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조직이다.

한 지붕 9가족 'IT백화점' 탄생

'대덕밸리 IT백화점' 이 본격 출범했다.

대덕밸리 정보기술(IT) 관련 9개 벤처기업이 한 건물에 입주해 연구개발과 제품생산에 나서는 'IT플렉스'가 지난 달 29일 대덕밸리 벤처협동화단지(대전시 유성구 장동)에서 문을 열고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IT플렉스는 20여개 기업들이 뭉쳐 있는 대덕밸리협동화단지 내에 있는 독립건물로 '대덕밸리 속의 대덕밸리'로 불린다.

지하 1층, 지상 5층, 연 건축면적 1천2백평의 이 곳에는 IT 관련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벤처기업 9개사가 입주했다.

543미디어텍을 비롯해 지식정보, 에스아이, 티에스온넷, 가인테크, 아날로그칩스, 텔트론, 해라시스템, 씨아이제이 등이 한 지붕 아래 입주한 9가족들이다.

IT플렉스 입주기업 최고경영자들은 모두가 국내 IT분야 연구개발의 산실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출신이다. 또한 입주기업 모두 2~3년 간의 연구개발 기간을 마치고 도약기에 접어든 공통 분모를 갖고 있다.

이런 점을 바탕으로 이들 업체는 대형 프로젝트 추진시 컨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하고 자금조달 및 마케팅, 홍보 등을 공동으로 펼치는 등 실질적인 협동화 모델을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IT플렉스의 간사인 543미디어텍 이명진 사장은 "공간 공유에 그치는 종전의 벤처기업 협동화단지와는 달리 IT플렉스는 입주기업간 공간은 물론 기술과 경영을 공유하는 신개념의 협동화단지가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 합작의향서 교환식



▲ 대덕 IT플렉스 전경

• 신제품/신기술 •

아이티, 차세대 광전송 핵심칩 개발

대덕밸리 코스닥 등록기업 아이티(대표 서승관)는 데이터와 음성이 통합된 차세대 통신망의 핵심 광전송시스템으로 떠오르고 있는 MSPP(다중 서비스 제공 플랫폼)시스템에 사용되는 핵심칩 'Sphinx-155'를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이 칩은 현재 외국 통신장비 제조사와 일부 상용칩 제작업체만 개발하고 있을 뿐이다.

아이티는 현재 이번 성공을 통해 이 칩을 탑재한 차세대 광전송시스템 MSPP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오는 10월 초쯤 선보일 계획이다.

회사측은 올 초부터 정보통신부의 산업기술개발 사업공모에 'Eos와 가상연결 기능을 갖는 MSPP용 차세대 동기식 전송장치(NG-SDH)개발' 과제가 선정돼 ASIC칩을 개발해왔다고 설명했다.

아이티는 현재 개발된 칩의 4배 규모인 'Sphinx-622'를 곧 개발해 내년 초 발표할 전화국용 MSPP시스템에 탑재할 계획이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칩개발로 다양한 전송속도의 전용회선 서비스와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인터넷 병목현상을 해소할 수 있다"면서 "차세대 제품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042-360-3625

에이팩, 저소음 CPU 냉각모듈 개발

대덕밸리의 냉각전문 벤처기업인 에이팩(대표 송규섭)은 기존제품보다 냉각효율이 두 배가량 좋은 컴퓨터 CPU 냉각모듈인 'ZEROtherm'을 개발완료하고 판매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전자제품 소음의 주범은 열이다. 제품이 가동되면서 열을 내고 이를 식히기 위해 팬이 돌면서 소음이 발생하는데, 특히 야간에는 견디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을 내기도 한다.

이번에 에이팩이 개발한 제품은 열 전도성이 탁월한 히트파이프(Heat Pipe)를 적용한 냉각모듈이다. 히트파이프는 일종의 진공 구리관으로 일반 구리관보다 열 전도율이 5백배 이상 높다.

'ZEROtherm'의 특징은 내장된 팬의 RPM이 2700으로 기존 제품에 비해 반 이하로 줄인 것. 여기에는 히트파이프 기술이 적용됐고 냉각효율은 좋으면서도 냉각장치의 무게도 줄였다. 'ZEROtherm'은 범용제품으로 일부제품을 제외하고 모든 메인보드에 바로 장착할 수 있다. 인텔 등 주요 CPU 제조사의 사양에 맞도록 표준화했기 때문이다.

에이팩은 전자통신연구원 출신의 송규섭 사장 등 연구자들이 '99년 창업하여 냉각모듈 설계와 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이다.

문의 : 042-864-0815

• 행사안내 •

기업 건강체질만들기 교육프로그램

— 개 요 —

코스닥위원회가 직접 참여하는 코스닥몸매만들기 강좌가 오는 27일부터 시작됩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3시~8시에 4주간 진행되는 이 강좌에는 코스닥위원회, 등록법인협회, 코스닥시장, 삼일회계법인, 미래에셋 증권, S-IPO 등이 참여하며, 강좌가 진행되는 동안 투자IR행사도 개최한다.

참가기업은 현재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체크리스트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강의가 진행됩니다.

참가비는 기업 1인당 10만원, 지원기관 20만원이다. 코스닥 진입을 희망하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주제 : 기업 건강체질만들기 교육프로그램

개강 : '02년 9월 27일부터(매주 금요일 오후 3시, 4주간 총 28시간)

장소 : 벤처카페 아고라(예정)

인원 : 30개사

참석대상 : 코스닥등록 및 기업의 건강체질에 관심있는 기업

문의 : 유상연 042-861-5005

메일 ehow@hellodd.com

신청의사 및 '기업건강체질 체크리스트' 필히 제출

투자IR에 관심여부를 밝혀서 신청할 것

비용 : 기업10만원(1인당), 지원기관 20만원